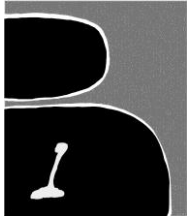


믿음 지혜 실천	<h1>BUDDHANARA</h1> <p>부다나라 (불국사)</p>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넷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찬불가 배우기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정기법회후에 송년회도 가집니다.

부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미국 부다나라 한국 후원회 (붓다회)”에서 함께 배우고 정진과 함께 봉사를 할 봉사단원들을 기다립니다. 붓다회나 미국 부다나라로 연락 바랍니다. Daum 카페: 한국붓다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Every Tuesday 6:30 pm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Intensive Meditation: Fourth Tuesday of the Month (매달 넷째주 화요일 저녁) 7:00 PM - 10:00 PM

이달의 법구경

수천의 싸움 승리로 이끈 사람보다
 자신을 조복한 사람
 그 승리 한결 위대하니,
 자신을 조복함은 승리 중 승리이고,
 하늘의 천신이나 지옥의 악귀들도
 이 승리 패배 할 수 없네.

If a man should conquer in battle a thousand and a thousand more, and another man should conquer himself, his would be the greater victory, because the greatest of victories is the victory over oneself, and neither the gods in heaven above nor the demons down below can turn into defeat the victory of such a man.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2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주 수행자를 찾아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비구 수행자를 자주 보지 않는 사람보다는 자주 만나는 사람이 훌륭하다.
 수행자를 만나는 사람에 두 종류가 있다. 수행자를 존경하는 사람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 중에 존경심을
 갖는 사람이 낫다. 비구를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경을 묻는 사람이 있고 묻지 않는 사람이 있다. 경을 묻지 않는
 사람보다는 질문하는 사람이 훌륭하다. 경을 묻는 사람 중에 일심으로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일심으로 경을 듣는 사람이 훌륭하다.
 일심으로 경을 듣는 사람 중에도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하다. 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는 깊은 뜻을 관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중에 뜻을
 깊이 관찰하는 사람이 훌륭하다.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는 사람 가운데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면서도 자신과 이웃, 사회와 인류를 생각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증일아함경 제1선법경>

신앙이란 종교적인 것에 관한 신념을 말합니다. 지구상 동물 중에 인간만이 종교적 신앙의 신념을 가진다고 합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이상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실천적 태도이며 부처님이나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의 심정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신앙은 신심(信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입니다.

신심의 신앙은 수행으로 나타나며 수행은 정진에 의한 자기 구제이며 깨달음을 통하여 보살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신심이 결여된 수행은 과녁을 보지 않고 아무데나 쏘아 대는 화살이요, 수행이 결여된 신앙과 신심은
 과녁만 바라보고 있을 뿐 막상 화살은 쏘지 않는 것과 같은 것 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훌륭한 믿음과 신행생활은 법의 뜻을 깊이 관찰하는 것이며 수행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
 사회에 행복을 위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옛 선사 스님 말씀에 도불원인이요 인원야(道不遠人人遠也,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지만 사람이 도를 멀리한다)라
 하였습니다. 즉 행복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가 행복을 알지 못할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기 위하여 부처님을 자주 뵈고 그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의논하고 탁마하는
 신행공동체에 동사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림보훈(禪林寶訓)의 설당도행스님 가르침에 보면 마조선사는 벽장선사와 남전선사로 인하여 그 대기(大機)와
 대용(大用)을 드러냈으며 남악천두선사는 약산선사와 천황선사를 만나서 그 대지(大智)와 대능(大能)을 드러냈다. 이는
 기러기가 바람에 날개를 펴고 훨훨 나는 듯하였고, 큰 물고기가 큰 바다로 활달하게 헤엄치는 것과 같았다 하였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면 수행자를 자주 찾아 존경하며 수행자에게 경전의 가르침을 묻고 일심으로 들으며 그
 가르침의 뜻을 깊이 관찰하고 수행하여 자신과 이웃 사회와 인류를 위해 행복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신행생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문 II: 중생과 함께 하는 마음이 부처님: 옷 속의 보배구슬

오백명의 아라한이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경례하고 스스로 책망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최고 열반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존께 수기를 받고 보니, 저희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보잘 것 없는 지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친구를 찾아갔다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친구인 주인은 아침 일찍 먼 길을
 가게 되어 아직도 자고 있는 친구의 옷 속에 보배구슬을 매어주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난 뒤, 자신의 옷
 속에 보배구슬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거지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는 거리에서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부자인 친구는 자신이 보배구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로 살고 있는 그가 안타까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이 값비싼 구슬을 줬는데도 아직도 그 꼴로 살고 있느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지친구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 구슬을 모르냐며, 옷 안의 솔기를 뒤져보니
 그 구슬이 아직도 감춰져있었습니다. 거지는 자신이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저희에게 일찍이 지혜를 주셨으나 알지 못하고 아직 이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서원을 굳건히 세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법화경> ‘오백제자 수기품’)

신년이 밝았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유난히 머리에 새겨지는 말이 있는데, 올해는 “과불래허(果不來虛)”라는 경전의 말씀이 그랬다.

“결실은 까닭 없이 오지 않는다.”

화엄에서는 이 우주를 떠받치는 것이 풍륜(風輪)이라고 한다. 바람의 기운인데, 이 바람의 정체성이 ‘바람(願)’인 것이 흥미롭다. 수행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은 믿음보다도 바람에 가깝다. 세상만물에 바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듯이, 원이라는 바람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깨달음이라는 수행의 결실인 과덕(果德)은 까닭 없이 오지 않고 반드시 큰 원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한다.

선가에서 “마음이 곧 부처(心卽是佛)”라 함은 ‘모든 중생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뜻도 된다. 중생이 가지는 가장 성스러운 마음이며, 어떤 오염되고 탁한 세상이라도 구원의 등불을 들고 기꺼이 뛰어 들 수 있는 마음인 것이다.

위 <법화경>의 비유를 보자. 마음을 떠난 부처의 완성이 없다는 것은 본래로 보배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적선을 바라는 거지형색으로 궁색하게 살아가고 있다. 올해가 임진년, 용의 해다. 우선 떠오르는 용과 관련된 인간지혜의 상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역>에서 “항룡유회(亢龍有悔)”라 하여 ‘끝없이 올라가려 하는 용은 후회가 있다’는 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암록> 18 칩에 나오는 “징담불허창룡반(澄潭不許蒼龍蟠)”, ‘고요한 물에는 용이 깃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요한 물에 들어가서는 승천할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세에 너무 고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대사가 많은 올해일수록 적당한 소란을 삶의 활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중단소식:

“전법포교 잘 하는 스님 양성이 목표”

교육원장 현웅스님 기자간담회서 밝혀

조계종 교육원이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실현할 것”을 천명했다.

교육원장 현웅스님은 오늘(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현웅스님은 “오늘날 승가교육이 지향해야 할 점은 자비정신을 갖고 전법과 포교를 잘 하는 스님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출가자들은 올바른 불교관에 입각해 이 시대 언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는 능력과 계율을 바탕으로 승가의 위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2012년 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을 통해 올바른 교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한해 교육원이 진행할 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승가교육 강화, 승가교육 현장간 소통, 승가고시 개선, 불교세계화와 역경 등 전문인재 양성, 출가자 재교육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승가교육 강화는 교육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다. 교육원은 기본교육기관 교과개편과 교재 발간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교과과정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을 필수, 선택, 일상수행 등으로 나눠 필수 32개 교과목과 선택 7개 교과목 등 총 39개 교과목을 4년간 수학하도록 했다.

또 조석예불, 사시불공, 법회, 불사 등 불교의식과 염불의례 좌선, 108 참회 사중소임, 대중 운력이나 발우공양 각종 습의 등 일상수행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개편된 표준교과과정은 올 3월부터 승가대학에서 시행되며 중앙승가대학은 201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기본선원이나 동국대의 경우 표준교과에 준하는 교과목으로 운영될 계획”이라며

“기본교육기관 조계종에서 출가한 사미(니)들은 표준교과과정을 통해 동일한 교과목을 공부하게 됨으로써 통일된 전법관과 중단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기본교육기관과 행자교육에서 한글염불의례 교육을 실시한다. 행자 및 학인에게 중단에서 공포한 한글염불의례를 지도함으로써 한글염불 대중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원은 염불지도교수를 위촉해 각급교육기관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4급 및 5급 승가고시에 교육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동영상 강의도 시행한다. 필수교과목 중 교육을 담당할 스님이 부족한 과목에 한해 교육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1학기에는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강의를, 2학기에는 세계종교의 이해, 중관사상, 불교와 동서철학 등 6개 교과목 강좌를 준비 중이며, 각 과목당 총 12강의 동영상을 제작, 보급한다.

이와 함께 행자교육, 기본교육, 법계별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한편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도 병행한다.

승가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고시제도도 개선한다. 2급, 3급, 4급, 5급 등 법계별 고시유형 개선 및 유형에 다른 출제문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한다. 18일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MOU를 체결하고 번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불교융합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한문불전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조계종 추천을 받은 스님에 한해 종단에서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 재교육을 위한 연수교육도 다양화 된다. 특히 스님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인문사회문화과정도 강화됐다. 또 연수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강좌를 접수하거나 이수를 확인하는 등 스님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이트를 신설했다.

출가자 수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층을 위한 출가예비학교도 운영한다. 7월말부터 8월초 9박 10일 과정으로 운영하며, 템플스테이나 여름 겨울수련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승가교육매거진을 발간해, 월 2회 온라인으로 승가교육 행정소식 및 각 교육기관 소식을 공유한다. 매거진에는 교육기관과 교육원소식, 교육행정, 이달의 추천도서, 승가교육이슈 등이 담긴다. 온라인 매거진은 각종 교육기관 교수 및 교수아사리, 교육위원, 장학위원 등 각종 위원들과 본사 교무국장 및 교육기관 교무 등에게 메일링 서비스된다.

교육원장 현웅스님은 “종단 승가교육 지표인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 실현’을 위해 기본교육기관 표준교과과정 개편 및 사이버동영상 강좌 개설 등을 준비했다”며 “자비정신을 갖춘 교수사로서 양성을 위한 중책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생각의 틀을 바꾸면... : 기도와 담배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실이 물었습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해?”

“글쎄, 잘 모르겠는걸. 랍비한테 물어보자구.”

랍비에게 나아간 세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괜찮을까요?”

랍비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친구로부터 담배와 기도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랍비의 말을 전해 듣자 이번에는 모리스가 나섰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괜찮을까요?”

랍비가 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형제여, 기도를 올려야 할 때와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이영직 지음 <세상을 움직이는 100 가지 법칙> 57 쪽 각색 인용)

기도와 담배는 한데 어울릴 수 없는 것이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는 절대불가이고, 어떤 경우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 됩니다. 프레임(frame) 법칙 즉 생각의 틀을 바꾸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도 오히려 아주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한 젊은이가 커다란 연못을 지나다가 물속에서 황금빛이 반짝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황금이다!”

젊은이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흙을 헤치고 노란 황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자 황금이 사라졌습니다. 흩날리는 바람에 황금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연못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다시 물속에서 황금빛이 번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다시 부리나케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황금이 있는 곳으로 헤치고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가 도착하자 황금은 사라졌습니다.

몇 번이나 되풀이했을까요? 젊은이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마다 그를 유혹이나 하려는 듯 반짝이는 황금빛에 번번이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의 아버지가 그곳으로 왔습니다.

“대체 종일 뭘 하고 있었기에 온몸이 다 젖고 그토록 지쳐 있는 것이냐?”

“물속에 황금이 있어요. 그걸 건져내려고 연못 속에 들어가 진흙탕을 헤집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물 밖에서는 보이는 황금이 물에 들어가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종일 연못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라 온몸의 힘이 다 빠졌어요.”

젊은이의 아버지는 물속을 지그시 응시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황금은 저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연못가 나무 위에 놓여 있던 황금이 햇빛을 받아 그림자가 물에 비친 것일 게다. 어쩌면 새가 어딘가에서 황금덩이를 물고 왔다가 나무 위에 놓아두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물속을 뒤질 것이 아니라 나무 위로 올라가 보거라.”

젊은이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셋노란 황금덩이가 그 위에서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백유경> 60 번째 이야기)

생각의 틀을 바꾸자 황금덩이를 손에 넣었습니다.

참다운 나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뒤적뒤적합니다. 하지만 다섯 가지 근간(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은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잡아함경 속의 안비아경(眼非我經)에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나’라는 황금덩이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부처님 성지 룸비니 복원, 이교도 손에?

네팔 불자들 시위...한국 2 백만달러 지원

부처님 탄생성지인 네팔 룸비니 복원 및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성지의 관광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네팔 문화부는 “한국이 제안한 ‘룸비니 평화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용했으며 현재 재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9 일 보도했다.

디네쉬 하리 아디카리 네팔 문화부 장관은 “네팔정부는 룸비니를 평화의 도시로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는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그 제안은 현재 재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디카리 장관은 이어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뒤 곧 이 합의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네팔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화의 도시 계획 실행을 위해 2 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제안서에서 “룸비니의 고고학, 환경, 문화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은 내년 1 월 중순께 세부계획서 작성을 시작해 향후 18 개월에 걸쳐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은 도시계획, 건축가, 지역개발, 도로교통, 관광문화, 환경재난,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3 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제안서는 또 문화, 유산, 고고학적 측면 등 3 단계 연구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 단계에서는 제안된 평화도시의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기반시설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룸비니를 방문해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안을 작성한 뒤 룸비니의 환경적 측면, 역사 문화적 중요성과 유산을 살펴보는 계획안을 담고 있다.

네팔정부는 마오주의 정당 지도자인 뿌쉬빠 까말 다할(Pushpa Kamal Dahal)을 의장으로 하는 룸비니 평화도시 개발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를 결성했으며, 다할 의장 등 네팔 대표단은 지난 9 월 뉴욕을 방문해 반기문 유엔총장과 만나 그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룸비니의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개발을 반대하는 이들은 특히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지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7 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수백 명의 불교도들은 마오주의 정당 지도자인 뿌쉬빠 까말 다할(Pushpa Kamal Dahal)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한 네팔 남부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것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스님 등 500 명의 ‘룸비니 개발 프로젝트에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 등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룸비니 개발 위원회(Lumbini Development Committee) 위원장 다할의 퇴진을 촉구하고, 불교 신자를 그 자리에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교도에 의한 부처님 성지의 관광지화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룸비니 개발 지역 ‘자율적 평화구역 선포’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불교 문화유산, 역사 유적지, 고고학적 보물 약탈의 ‘문화유산 범죄’ 간주 및 즉각 중단 △룸비니, 보우다, 스와얌부, 나마부다 및 주요 불교 성지의 ‘평화구역’ 선포 △종교, 문화 및 문화 자원과 관련된 불교적 사안의 개발을 위해 불교도가 대표를 맡는 정부 부서 설립 △불자들의 동의 없이 정치적 정략과 관련된 네팔 정부 하의 모든 불교 단체, 위원회, 불교 행사 반대 등을 주장했다. 룸비니 개발 위원회의 책임자 다할은 네팔에서 10 년간 지속된 내전의 장본인인 마오주의자 반군 지도자다. 내전은 2006 년 정부와의 평화 조약 체결로 막을 내렸으나 10 년 간의 내전동안 1 만 6 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정부위원회인 불교보존관계자위원회(Buddhism Preservation Stakeholders Committee)의 라빠 셰르파(Lhakpa Sherpa)도 “정치인들이 관광 명소화를 통해 룸비니 같은 종교 성지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사원들은 티베트 해방운동 혐의에 대한 정부당국의 엄격한 견제를 이유로 위원회 참여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앞서 보우다(Bouddha)의 세첸 고평(Sehchen gompa)와 화이트 고평(White gompa) 등의 사원에 대한 감시활동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사원 대부분은 네팔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팔불교위원회 대표 샤쿰 셰르찬드(Shakun Sherchand)는 “롬비니는 비불교도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며 “이 평화적 집회는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불교도들의 정당한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며, 우리는 비불교도 대표가 불교 문제를 대표하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네팔 복원공사 동참을 권유 받았다. 또 지난 10월 파리에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반총장이 유엔과 유네스코, 불교 국가들이 롬비니 복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롬비니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저도 방문길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고 롬비니 성역화 사업의 협력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에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도 롬비니 방문 동행을 약속한 바 있다.

6 근 통해 6 가지 경계를 본다 육근-육경-육식 ②

인간에 대한 불교의 기본적인 인식은 몸과 정신이다. 몸은 다시 물질인 눈(眼根), 귀(耳根), 코(鼻根), 혀(舌根), 피부(身根)의 집합체이며, 정신작용인 마음(意)을 더하여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육근(六根)에서 인식이 비롯된다고 한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는 이 육근에 의해 각각의 대상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가 인간의 인식 영역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초월적인 진리나 이상세계의 구현을 설하기 위해 먼저 우리들 몸에 지닌 다섯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피부와 마음을 이용해 구체적인 현실세계의 관찰에서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인 현실 세계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를 말한다. 온 우주와 세계는 그럼 무엇인가? 이 해답은 <잡아함경>에 나타난 부처님과 어느 바라문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서는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에 어떤 생문 바라문은 ‘일체(一切, 모든 것)가 무엇인가’를 부처님께 여쭙었다.

“일체란 곧 십이처(12處)니,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부딪힘. 뜻과 법이다. 이것을 일체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벗어난 다른 일체를 말한다면 그것은 다만 말에 불과하며, 물어보아도 알지 못하며, 의혹만 더할 뿐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있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6 근을 통해 인식되는 여섯가지 경계(境界)인 12 처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다. 눈.귀.코.혀.몸의 다섯 감각기관과 이를 통솔하는 의근(意根)을 육근이라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인식대상인 빛깔(色境), 소리(聲境), 냄새(香境), 맛(味境), 부딪힘(觸境), 법(法境)이 육경(六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눈으로 보는 시각능력과 시신경과 같은 시각기관인 안근(眼根), 귀로 듣는 청각능력과 청각기관인 이근(耳根),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능력과 후각기관인 비근(鼻根), 입으로 맛을 아는 미각능력과 미각기관인 설근(舌根), 몸으로 더위와 추위 고통을 느끼는 촉각 능력과 피부에 분포된 촉각 신경과 같은 촉각기관인 신근(身根)이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아는 지각능력과 지각기관인 의근(意根)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눈으로 보는 색깔과 물질인 색경(色境), 귀로 듣는 소리인 성경(聲境), 코로 맡는 냄새나 향기인 향경(香境), 입으로 느끼는 맛의 대상인 미경(味境), 몸에 닿아 느낌을 일으키는 모든 대상인 촉경(觸境), 마음으로 아는 생각인 법경(法境)이 있다.

이와 같이 육근에 각각에 대응한 육경을 모두 합쳐서 인식체계를 설명하는 것이 불교의 12 처설(十二處說)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육근이 인간존재라면 이는 인식의 주체가 되고, 육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환경이 인식의 대상이 된다.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벗어난 것은 단순히 말장난에 불과하며, 의혹이 끊이지 않아 물어도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어 모르는 것과 같고,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인간이 인식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즉 모든 존재는 인간의 인식을 중심으로 존재하며, 온 우주와 세계는 12 처로 분류되고 인식된다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 세계관을 설명하는 것이다.

-불광교육 연구소-

보살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사섭법(四攝法) ① - 보시섭

석길암 금강대학교 인문한국연구센터 교수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네 가지 사섭법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행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기에서 ‘섭(攝)한다’는 것은 ‘보살이 고통받는 중생을 포용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친애하는 마음을 들도록 하고, 보살을 신뢰하게 하며, 나아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섭법은 그러한 행위 내지는 조건들을 설명한 네 가지 기본적인 실천덕목이라는 말이다.

일반 불자의 경우에는, 타인을 보살피고 애호해주면서 행복한 사회생활을 만들도록 하는 네 가지 미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살에게는 중생교화의 덕목이며,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덕목인 것이다. 그 중에서 먼저 보시섭(布施攝)에 대해서 살펴본다. 보시섭은 보시섭사(布施攝事), 보시수섭방편(布施隨攝方便), 수섭방편(隨攝方便) 혹은 혜시(惠施)라고도 한다. 본래의 뜻은 ‘주는 것으로 섭수하는 실천덕목’이라는 의미이다. 중생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보살을 친근하게 느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까닭에 보시섭이라고 한다. 중생을 교화하는 핵심으로 보시방편을 주로 사용할 때 보시섭이라 한 것이므로 보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보시란 경전 전반에 걸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의 경우 역시 어떤 불교용어보다도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보시는 범어 da-na 의 음역으로, 한문으로 옮길 때는 단나(檀那), 타나(那), 단(檀)이라고 음사하였으며, ‘베꼴다’는 뜻이다.

보통하는 보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재물을 주는 경우(財施)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경우(法施),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병고와 같은 온갖 두려움을 없애주는 경우(無畏施) 등으로 보시를 나눈다.

경전에는 보시의 결과로 시주자(施主者)에게 돌아올 공덕이나, 예전에 보시한 공덕이 현재의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많이 소개하여 보시를 권유하는 전범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보시섭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보시하는 마음가짐인데,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공한 것이어서 아무런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그러나 보시섭에서는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보살이 보시를 통해서 중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목적의 하나로 보시라는 행위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보시섭은 조건 없는 보시를 하면서도 중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살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시라는 행위가 무조건(무소유)이라는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일반화시켜 보면, 보시라는 행위에 있어서 도를 넘어서는 시여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BUDDHANARA TEMPLE (佛國寺) 성도재일 및 임진년 정초기도 동참자 명단 추가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희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 하여 불자님 가정의 가내 평안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성도재일 및 임진년 새해 기도 동참하신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인연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지면 관계상 주소는 생략하고 올렸습니다.-

1월 소식지에 올린 동참자 명단에 이어서...

36. Joshua Todd, Okhwa Todd, Danel Horton, Chris Horton

37. Debra Tak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11 월 10 일 (음력 10 월 15 일)부터 2 월 6 일 (음력 1 월 15 일)까지 3 개월 동안거 결재 기간동안 모두들 마음공부들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동안거 기간이 끝나더라도 참 수행자의 마음자세로 향시 삼업(마음, 몸, 뜻)을 챙기고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수행의 근간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참선, 염불, 참회기도등 각자에 맞는 수행 정진으로 매일 매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2 월과 3 월 소식지는 합본으로 발행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 월 29 일 (음력 2 월 8 일)은 부처님이 세속을 떠나 인류의 스승이 되시기 위해 수행의 길을 떠나신 출가재일 이고, 3 월 7 일 (음력 2 월 15 일)은 부처님께서 80 세로 45 년간 전법으로 인류에 큰 발자취를 남겨주시고 열반에 드신 열반재일입니다.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이 2 월 말과 3 월 초 일주일 간격으로 있습니다. 생과 사도 이와 같고 깨닫고 깨닫지 못함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들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정진합시다.
- 부다나라 주지 선각스님이 건강상 이유로 한국으로 일시귀국합니다. 2 월 2 일부터 3 월 27 일까지는 한국에 계시니 급한 연락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전화(02)864-5170, (010)4251-5170, 또는 이메일 hkyungae1@hanmail.net, buddhanara@gmail.com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바랍니다. 주지스님이 안계셔도 세인트루이스나 애틀랜타 법회는 변동사항없이 진행합니다. 주지스님이 안계실때일수록 신도님들의 화합된 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는 스님이 안계시는 동안에도 사찰도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사찰에 급한 불일이 있으신 신도님들은 여래성 김선영 불자님이나 사찰 대표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 2 월 첫째주 일요일 법회후에는 웃놀이가 있습니다.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들 웃놀이도 하시고 상품들도 타 가지기 바랍니다.
- 세인트루이스 선법 조승호 거사님 첫째 아드님인 현준(니콜라스)이가 씩씩하게 자라서 2 월 21 일 뉘를 맞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현명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다나라 모두의 마음을 모아 뉘를 축하합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2012 년 한인회 광고 불사 동참: 최미향(Mihyang Clem).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